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26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손 수 연

HANSUNG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성호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Utilization of the Twelve Zodiac Deities in Silla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손 수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윤성호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Utilization of the Twelve Zodiac Deities in Silla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손 수 연

손수연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이 재 석 (인)

심 사 위 원 박 근 칠 (인)

심 사 위 원 윤 성 호 (인)

HANSUNG UNIVERSITY

국 문 초 록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손 수 연

본 연구는 신라에서 십이지상(十二支像)이 수용되어 등장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십이지상이 신라 사회에서 지녔던 의미의 변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십이지(十二支)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열두 글자를 말하며,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열두 동물로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십이지상은 중국에서 먼저 확인되며, 처음에 문자로 등장한 십이지는 방위와 시간을 상징하게 되며 이후 동물 머리에 사람 몸을 결합한 수두인신형(獸頭人身形)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신라는 중국의 십이지상을 수용하면서도 조영 위치와 도상 형식에서 독자적인 전개 양상을 보였다. 특히 능묘 외부의 호석(護石)에 십이지상을 조영한 사례는 동아시아에서 신라에서만 확인되며,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무장형(武將形)으로 표현된 점 역시 신라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신라에 수용된 십이지상은 능묘 내부의 부장품, 혹은 능묘 외부의 별도 매

납품으로 등장하였다. 경주 용강동 고분 출토 청동제 십이지상을 비롯한 매납형 십이지상은 능묘 내부 부장형에서 능묘 외부 매납형으로 점차 이동하는 단계적 변화를 보이며, 이 과정에서 도상 또한 평복 차림에서 무장형으로 변화하여 수호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후 십이지상은 능묘 외부 호석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호석 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신라왕릉의 호석은 자연석 단계, 장대석 단계를 거쳐 면석과 탱석을 조합하는 단계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호석 구조의 변화는 불탑(佛塔)건축 양식의 수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호석의 구조가 면석, 탱석으로 불탑 기단부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점, 왕릉 호석에 십이지상이 부조로 새겨지기 시작한 시점이 불교의 문화 발달에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신라왕릉은 점차 불탑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전환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성덕왕릉, 경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을 비롯한 10기에서 확인되는 호석 십이지상은 능묘 수호와 왕권의 시각적 구현이라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십이지상은 능묘라는 공간을 넘어 불교 석조물에도 확산이 되었다. 9세기에 이르러 석탑에는 사천왕상(四天王像), 팔부중상(八部衆像), 십이지상이 함께 조합되어 위계적인 신중(神衆) 체계를 이루었으며, 이는 십이지상이 능묘의 특수한 수호신에서 불법(佛法)을 수호하는 신중의 일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9세기 말 신라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왕릉 호석의 십이지상 조영은 쇠퇴하였으나, 그 양식은 단절되지 않고 고려와 조선의 왕릉 문화로 계승되었다.

십이지상 문화의 확산은 십이지상의 의미가 능묘라는 특수한 영역을 넘어 신라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었고 이러한 문화가 신라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변용되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십이지상의 조영 위치 변화와 도상 변화, 그리고 그 배경이 된 시대적 상황을 하나의 연속적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신라(新羅), 십이지상(十二支像), 왕릉(王陵), 호석(護石), 장엄탑(莊嚴塔)

목 차

제 1 장 머리말 ····· 1

제 2 장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 ····· 7

제 1 절 중국의 십이지상 기원과 발전 ····· 7
제 2 절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과 등장 ····· 10

제 3 장 호석의 장엄 십이지상 등장과 역할 ····· 18

제 1 절 신라왕릉 호석의 변화와 불탑 양식의 수용 ····· 18
제 2 절 신라능묘의 호석 장엄 십이지상 등장 ····· 23

제 4 장 십이지상 문화의 확산과 변용 ····· 28

제 5 장 맺음말 ····· 36

참 고 문 헌 ····· 38

부 록 ····· 41

ABSTRACT ····· 43

표 목 차

[표 1] 신라의 매납형 십이지상 분류표 ····· 10
[표 2] 신라왕릉 십이지상 분류표 ····· 19
[표 3] 신라의 십이지상 장엄 석탑 분류표 ····· 28
[표 4] 신라의 십이지상 관련 사례 분석표 ····· 42

HANSUNG UNIVERSITY

그 림 목 차

[도 1] 경주 용강동 고분 출토 청동제 십이지상 사진 ····· 12
[도 2] 경주 용강동 고분 청동제 십이지상 상세도 ····· 13
[도 3] 경주 화곡리 화장묘 소조십이지상 사진 ····· 14
[도 4] 경주 화곡리 화장묘 소조십이지상 출토 장면 사진 ····· 14
[도 5] 경주 전 민애왕릉 납석제 십이지상 사진 ····· 15
[도 6] 경주 소현리 석실분 십이지상 호석 사진(왼쪽 말, 오른쪽 토끼) ·· 16
[도 7] 경주 김유신묘 출토 납석제 십이지상 사진 ····· 17
[도 8] 경주 선덕여왕릉 호석 사진 ····· 19
[도 9] 경주 신문왕릉 호석 사진 ····· 19
[도 10] 경주 성덕왕릉 호석 사진 ····· 20
[도 11] 경주 경덕왕릉 호석 사진 ····· 20
[도 12] 경주 감은사 터 서삼층석탑 사리엄구 사리내함 ····· 21
[도 13] 중국 법문사 금동부도 ····· 22
[도 14]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 29
[도 15] 경주 진덕여왕릉 사진 ····· 32
[도 16] 경주 진덕여왕릉 좌측 호석 구조 상세도 ····· 32
[도 17] 경주 진덕여왕릉 십이지상 상세도 ····· 33
[도 17] 경주 흥덕왕릉 쥐(子), 소(丑) 상세도 ····· 33
[도 17] 경주 진덕여왕릉 쥐(子), 소(丑) 상세도 ····· 33

제 1 장 머 리 말

십이지(十二支)는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의 열두 글자를 말하며,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열두 동물로 각각 표현된 것이 십이지상(十二支像)이다.[1] 방위와 시간을 상징하며 역법에서도 활용되었다. 이러한 십이지상은 동물 머리에 사람 몸을 결합한 수두인신형(獸頭人身形) 혹은 수수인신형(獸首人身形)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십이지와 십이지상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확인이 된다. 중국에서 초기에는 무덤 내에 봉안되는 판석 형태를 띤 묘지명의 가장자리를 따라 십간십이지를 방위에 맞게 글자로 표기하였다. 이후 한대(漢代)부터 일부에서는 동물 모습 그대로인 수두인신을 한 십이지상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당대(唐代)인 8세기 중엽에 이르면, 묘지명의 경우 가장자리는 글자 대신 수두인신의 형태를 한 열두 마리의 동물 그림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이후 무덤 부장품으로 제작되어 묘실 내부에 일정한 방위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표현된다.[2] 일본에서는 부장품으로 제작된 십이지상은 확인되지 않고, 무덤의 내부에 그려진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3] 머리가 동물이면서 신체는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일본의 십이지상이 도상적인 유사성을 보인다.

신라는 십이지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일본과는 다른 독자적인 전개 양상을 보인다. 중국과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수두인신의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조영 위치와 도상 복장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먼저 십이지상이 능 내부가 아닌 능 외부의 봉분을 둘러싼 호석(護石)에 조영되어 드러난다는 점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사례이

1) 孫景穗, 「韓國 十二支生肖의 硏究」, 『梨大史苑』 4, 1962, 2쪽.

2) 이근직,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12, 301-302쪽.

3) 7세기 말에서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 아스카무라아베산에 위치한 키토라 고분 내부에서 확인된다(서남영, 「신라 능묘에 보이는 국제교류 - 獸頭人身 武將形 十二支像을 중심으로 -」, 『신라문화』 65, 2024, 374쪽).

다. 또한 십이지상이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무장형(武將形)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의 십이지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신라만의 독자적인 특징이다. 즉 신라의 십이지상은 중국, 일본과 수두인신이라는 공통된 형식을 공유하지만, 조영 위치와 도상 형식에서 독자적으로 변화한 사례로 이해된다.

이러한 십이지상이 확인되는 신라의 왕릉 및 능묘는 총 10기이며 능 외에 불교 석조물에서도 볼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십이지상의 조영 위치와 도상 양식이 신라에서만 확인되는 독자적인 양식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십이지상이 신라에 수용되어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여 신라에서 등장하는 십이지상의 의미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신라 십이지상 연구는 왕릉에 주목하여 능묘 편년과 변화 단계 분석, 도상 및 양식 고찰, 특수성과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먼저 능묘 편년과 변화 단계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라왕릉의 변천을 검토하여 능묘 구조의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호석과 십이지상 도상 변화도 함께 살펴 왕릉 편년을 측정하였다.[5] 선행 연구를 통해 왕릉의 조성 시기 비정과 능묘 변화과정에 관해 많이 밝혀졌지만, 사료와 고고학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자마다 왕릉 편년이 다르며 이견이 존재한다.

도상 및 양식 고찰에 관한 연구는 십이지상의 도상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의 십이지상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가장 이른 시기의 십이지상이 성덕왕릉의 환조(丸彫)라고 규명하였다.[6] 또한 십이지상의 기원을 중국 능묘

4) 해당 명칭은 국가유산청에서 인정한 명칭으로 명명하였다. 황복사지 동편 왕릉 경우 국가유산청에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위치상 황복사지 동쪽에 있고 폐고분지로 봄으로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로 말하고자 한다. 십이지상이 확인되는 신라왕릉은 경주 성덕왕릉, 경주 원성왕릉, 경주 경덕왕릉, 경주 헌덕왕릉, 경주 흥덕왕릉, 경주 진덕여왕릉,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 경주 김유신묘, 경주 능지탑지, 경주 구정동 방형분에서 확인된다. 신라 불교 석조물은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영양 화천동 삼층석탑, 영양 현일동 삼층석탑, 경주 암곡동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부도 등에서 확인된다.

5) 이근직, 「신라 왕릉의 기원과 변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김용성·강재현, 「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 『야외고고학』 15, 2012; 김용성,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역사논총』 11, 2012; 이근직, 앞의 책, 2012; 장호진·강량지, 「신라 황복사지(皇福寺址) 동편 폐고분지(廢古墳址)의 성격」,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3, 2020; 박형열·이지향,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특징과 순서에 대한 일고찰」,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5.2,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배노찬, 「統一新羅 王陵의 編年과 被葬者 比定」,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의 십이지상으로 파악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국 당대 십이지상과의 비교를 통해 신라 십이지상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하였음을 논증하였다.[7] 또한 신라왕릉 조각이 당 능묘제도와 불교 신앙에서 영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확인하였다.[8] 신라왕릉의 호석과 난간석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 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9] 또한 신라에서 능묘에서 등장하는 십이지상이 기존 연구에서는 왕릉 호석에 집중하였다면 능묘 내부에 매납(埋納)되어 등장하는 초기 십이지상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0] 이를 통해 신라왕릉은 당과 불교의 영향을 통해 신라만의 호석, 십이지상, 석인상, 사자상을 하나의 세트로 갖추는 능묘제도를 완성하였다는 점을 규명하였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도상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여 십이지가 나타나게 된 정치적, 시대적 의미에는 근접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최근의 연구는 십이지상의 특수성과 의미에 대해 진행되었다. 왕릉 조영의 시기와 왕릉 조각 제작 시기 사이의 불일치 가능성을 살펴보고 기존 통념처럼 받아들였던 왕의 사망과 동시에 왕릉 조각이 완성된다는 전제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또한 왕릉 십이지상의 조영 연대를 승탑 신장상과의 양식 비교를 통해 추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12] 신라 하대 선사들의 묘탑에는 함께 제작된 탑비가 남아있어 탑의 제작연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왕릉 십이지상과 양식 비교함으로써 양식적 특징과 조영 연대를 연도 단위로까지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신라 횡혈식석실묘에서 출토된 십이지상을 진묘자(鎭墓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신라인의 진묘 인식과 사후관의 변

---

6) 孫景穗, 앞의 논문, 1962.

7) 姜友邦, 「統一新羅十二支像의 樣式的 考察」, 『미술사학연구』 154·155, 1982; ___, 『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8) 김창겸, 「통일신라시대 왕릉의 불교적 시설과 능사」, 『역사논총』 31, 2019.

9) 이근직, 앞의 책, 2012; 최영준, 「신라 중하대 능묘 호석 구조의 변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10) 강대선, 「新羅 陵墓의 埋納式 十二支像 硏究」,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11) 임영애, 「신라하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불교미술사학』 14, 2012.

12) 강삼혜, 「통일신라 왕릉 십이지상의 도상과 양식 고찰-승탑 탑신 신장상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 『신라문화』 66, 2025.

화를 규명하고자 하였다.[13] 그리고 신라능묘 십이지상의 수두인신 무장형이라는 독자적 도상이 중국 및 중앙아시아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어떻게 수용, 변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신라 십이지상의 무장화가 왕릉 수호의 의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14]

선행 연구들은 십이지상 능묘의 편년 비정, 도상과 양식 분석, 십이지상의 특수성과 의미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십이지상의 조영 위치 변화과정에서 능 내부에 배치되었던 십이지상이 능 외부 호석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위치의 변화 자체는 연구되어 있으나, 그 변화가 이루어진 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능묘 내부 매납 십이지상과 능묘 외부 호석 십이지상, 불교 석조물에 등장하는 십이지상이 각각 따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함께 살펴본 연구도 존재하지만, 양식과 등장에 관해서 설명할 뿐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에 입각하여 십이지상이 신라에 수용되어 등장하여 변화하는 과정을 연속적인 흐름 순서대로 확인해보고 당시의 상황을 함께 검토하여 신라에서 등장하는 십이지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십이지상이 신라에 수용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신라에 수용되기 전의 십이지상의 모습과 수용 후 등장하는 십이지상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1절에서는 십이지상이 등장한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십이지상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십이지상의 의미와 중국과 신라의 십이지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절에서는 신라에서 십이지상이 처음 등장한 능묘 매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능묘의 호석에 등장하기 전에 능묘 내부에 매납의 형식으로 십이지상이 등장한다. 신라에 유입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용강동 고분을 비롯한 신라능묘 매납 출토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왕릉 호석에 등장하는 십이지상의 순서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13) 김수민, 「신라 횡혈식석실묘의 십이지상과 진묘 인식」, 『민족문화논총』 85, 2023.

14) 서남영, 앞의 논문, 2024.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 십이지상을 수용하며 처음에는 능묘 내부 매납의 형식으로 등장하였으나 이후 능묘 외부의 호석에 십이지상이 등장한다. 호석에 십이지상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호석의 양식 변화가 필수적이었다. 1절에서는 신라왕릉 호석의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준 불탑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교에서는 십이지상이 수호신으로 사천왕상(四天王像)과 팔부중상(八部衆像)과 함께 등장하고 수호신의 기능이 강화되어 장엄(莊嚴) 양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15] 이러한 양식이 십이지상이 외부에 나오게 된 이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2절에서는 능묘 호석 십이지상의 조형적 특징을 검토한 뒤, 당시 문물의 수용과 사회 상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내부 매납 십이지상과 호석 십이지상 사이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고 왕권을 가시화하는 상징체계로 전환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십이지상 문화의 확산과 변용에 관해 확인하고자 한다. 신라 십이지상은 신라 말 쇠퇴기로 인해 도상이 단순화해지고 능묘에서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고 불교 석조물에서는 장엄의 역할로 등장하고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에서 수용한 십이지상이 신라만의 독자적인 양식과 의미로 변화하였고, 양식적으로 보편화를 이루며 이후 계승되어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라에서 십이지상이 수용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능 내부에서 능 외부로의 조영 위치 변화와 불교 석조물에서의 십이지상 등장을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십이지상이 신라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닌 존재로 변화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능묘에서 신라의 십이지상이 단순한 무덤 장식 요소가 아니라 능묘를 수호하고 왕권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체계로 전환되었으며, 불교에서도 등장하며 이후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지는 십이지상의 기초를 만들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십이지상의 조영 위치의 변화와 도상의 변화 그리

15) 불교에서는 당탑(堂塔)이나 불보살에 장식하는 것을 장엄(莊嚴)이라고 한다. 장엄의 근본적인 뜻은 탑 내에 봉안된 사리의 수호 내지는 공양에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신라 석탑에 표현된 많은 장엄은 역시 같은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석탑에 새겨진 장엄조식은 단순히 외양을 장식하는 요인으로서가 아닌 특별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290쪽).

고 당시의 상황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신라 십이지상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십이지상 도상과 현황조사보고서, 발굴자료보고서를 참고하여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더하여『三國史記』,『三國遺事』등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

제 1 절 중국의 십이지상 기원과 발전

먼저 신라의 십이지상 양식에 영향을 준 중국의 십이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십이지상 기원과 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신라에서 수용한 십이지상의 의미와 중국과 신라의 십이지상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십이지상은 신라보다 먼저 중국에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등의 10개의 천간(天干)과 자(子), 축(丑), 인(寅), 묘(卯) 등의 땅과 하늘의 12방위를 나타내는 십이지를 합쳐서 간지(干支) 혹은 육십갑자(六十甲子)로 부르고, 이를 순환하고 있는 천지(天地)의 변화원리로 이해하고 있다.[16]

십이지는 십이생초(十二生肖) 혹은 십이속상(十二屬相)으로 불렸는데 한대(漢代)에 이르러서는 음양오행설과 결합했다. 그 결과 십이지는 대지(大地)를 지배하고,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물과 방위, 시간의 흐름을 다스리는 상징체계가 되었다.[17]

이러한 십이지는 한대에 등장하기 전에 갑골문에서 먼저 나타난다. 하남 안양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문(甲骨文)에 새겨진 육십간지표(六十干支表)를 통해 늦어도 상대(商代)에는 십이지가 시간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18] 그러나 갑골문에 나타난 십간·십이지의 의미는 대부분 물고기, 새, 벼, 수렵, 어로 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

한대(漢代)에 이르러서는 음양오행설과 결합하여 나타나 그 결과 십이지는 대지(大地)를 지배하고,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물과 방위, 시간의 흐름

16) 김만태,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에 대한 근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54, 2011, 269-272쪽.

17) 서남영, 앞의 논문, 2024, 369쪽.

18) 김만태, 위의 논문, 2011, 272-273쪽.

19) 이종관, 「갑골문에 나타난 십간과 십이지 형태에 대한 고찰(考察)」, 『인문사회21』 7.4, 인문사회21, 2016, 59쪽.

을 다스리는 상징체계가 되었다.[20] 한대(漢代)에 십이지가 열두 동물에 배당된 것은 후한의 왕충(王充)이 지은 『論衡』에 보인다. 십이지를 12수에 배당하여 자(쥐), 축(소), 인(호랑이), 묘(토끼), 진(용), 사(뱀),오(말), 미(양), 신(원숭이), 유(닭), 술(개), 해(돼지)로 불렸다. 십이지는 방위, 시간, 연도, 출생 연도 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이용되었다.[21] 『論衡』이외에도 불교 경전에서 십이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열두 짐승으로서의 십이지로 나타나는 예로 『大方等大集經』이 있다. 십이지의 성격을 확인하면 동서남북 사방에 위치한다는 의미에서 방위를 상징하고 있으며, 날(日), 달(月), 년(年)을 각자 맡은 모습을 보아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이러한 열두 짐승은 밤낮으로 항상 염부제의 안을 다니면서 하늘, 사람을 공경하고 공덕을 성취하고 나서는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깊은 서원을 내어, 하루 낮 하룻밤 동안에 걸쳐 항상 한 짐승이 노닐면서 교화하고 나머지 열 한 짐승은 편히 머물러 사랑을 닦았는데, 이와 같이 차례를 마치면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느니라. 그러자 7월 초하룻날 쥐가 처음 노닐기 시작하여 성문승으로써 온갖 쥐 몸의 중생을 교화시켜 나쁜 업을 여의게 하고 착한 일 닦기를 권하되, 이와 같이 차례에 따라 열사흘을 마치고 쥐는 다시 노닐기를 열두 달에 이르고 내지 열두 해 동안 그렇게 함은 항상 중생을 조복하기 때문이니라.[22]

A의 기사를 통해 열두 짐승이 순행하며 교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열두 짐승의 순서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염부제의 동서남북 사방에 위치하는 의미에서 방위를 표현하면서 단순하게 남, 서, 북, 동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반해 시간에 대해서는 순행하며 12일이 지나고, 12달이 지나고, 12년이 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하루의 시간도 나누어 교화하게 된다고 보았다.[23]

---

20) 서남영, 앞의 논문, 2024, 369쪽.

21) 김수민, 앞의 논문, 2023, 342쪽.

22) 『大方等大集經』 卷23, 第 5.

23) 최민희, 「12지신상의 연원에 관한 고찰(Ⅰ)」, 『경주문화논총』 13, 2010, 41쪽.

중국에서는 수나라 이후 묘지석에 십이지상을 조각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이때 처음으로 십이지의 형상이 머리와 몸이 모두 짐승의 모양 수신수수(獸身獸首)로 나타났다. 십이지상은 당나라 시기에 유행하였는데, 묘지석에 조각한 것뿐만 아니라 십이지상을 도용으로 만들어 무덤에 부장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는 8세기 중엽의 분묘 묘지석에서 동물의 얼굴과 사람의 몸을 한 십이지신상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24)]

중국의 무덤의 현실 내에 배치하는 십이지용(十二支俑)은 그보다 빠른 6세기 말 또는 7세기 초부터 등장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중국 호북성 무창의 수마방산묘에서 출토된 것이다.[25)] 당나라 중기 이후인 8세기 이후부터 머리는 짐승이고 몸통은 사람 모양 수두인신형으로 바뀌고, 당나라 말기에는 머리와 몸통 모두 사람 모양 인신인수(人身人首)로 바뀌었다.

신라에서 수용한 십이지상은 중국의 음양오행 사상과 방위신 관념, 불교의 수호신 신앙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신라만의 고유한 무장형 수호상으로 재창조되었다. 이는 외래 도상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문화, 종교, 상황 맥락 속에서 변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2절에서 다룰 신라의 능묘 내부 출토 십이지상 수용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24) 김지연, 「조선왕릉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도상(圖像) 원류와 전개과정」,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42.4, 2009, 8쪽.

25) 이근직, 앞의 책, 2012, 302쪽.

제 2 절 신라의 십이지상 수용과 등장

앞서 1절에서 중국의 십이지상 기원과 발전을 확인했으며, 중국에서는 벽화와 명기(明器)로 등장하였는데 신라에서는 십이지상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2절에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신라에 십이지상이 처음 등장한 형태는 명기로서 능묘 내부 또는 외부에 별도로 매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후 점차 능묘 호석 하부에 매납되는 단계를 거쳐 능묘 외부 호석에 새겨지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신라능묘에 등장한 십이지상은 처음부터 능묘 외부 호석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십이지상의 등장과 위치가 능의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하는 단계를 검토함으로써 위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의 십이지상의 첫 등장은 입상의 형태로 능묘 내부에서 부장형으로 다른 토용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중국 당대의 능묘에서 십이지용이 다른 명기류와 함께 부장되었듯이, 신라에서도 토용 등 여러 명기류와 함께 십이지상이 매납된 것이다.

신라능묘 내부에 명기류나 토우, 토용을 부장하는 것은 4세기~6세기대에도 존재하였으며, 능묘 양식의 변화로 모습이 달라졌다. 토기에 장식된 부착형 토우에서 7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는 독립형 토우로 변화되었으며, 횡혈식 석실분에 매납된 토용으로 제작기법과 제작목적이 변화되었다. 이는 토우의 조형이나 상징성은 당시의 시대상에 맞게 순장 대용품인 토용으로 또는 어떤 목적의 의례용으로 변화된 것이다.[26] 지증왕 3년(502)에 순장 제도를 금지한 이후[27],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사후에도 생시와 같은 생활을 영위한다는 계세사상(繼世思想)에 따라 시종(侍從), 병사(兵士), 관인(官人) 등 인물형상의 토용을 무덤에 매납하기 시작한 것이다.[28]

토우에서 토용으로 신라 묘제 양식의 변화 시기에 중국의 묘제 양식과 불

26) 손명순, 「新羅 土偶 硏究: 現況과 變遷을 中心으로」,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12쪽.

27) 『三國史記』 卷4, 신라본기 4, 智證 麻立干 3년 “三年, 春三月, 下令, 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28) 손명순, 위의 논문, 2017, 34쪽.

교의 영향으로 기존의 양식에서 변화가 생겼으며 이때 십이지상, 십이지용 양식을 수용하는 것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신라에 십이지상이 처음 등장하는 능묘 내부와 외부에 별도로 매납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십이지상이 매납된 사례는 총 6곳이 확인된다. 이를 매납의 위치에 따라 능묘 내부 부장형과 능묘 외부 매납형, 능묘 외부 매납 호석형의 3개로 구분할 수 있다.[29]

구분	출토지	위치	재질	형상	복장	조각 형식	추정 조성 시기
능묘 내부 부장형	경주 용강동 고분	석실 내부	청동제	입상	평복	환조	7c말 8c초
	경주 화곡리 화장묘	석함 주변	토제	좌상			9c
능묘 외부 매납형	경주 전 민애왕릉	능묘 외부	납석제				8c
능묘 외부 매납 호석형	경주 소현리 고분		석제			부조	8c
	경주 김유신묘	호석 밑	납석제	입상	무복		8c중 8c후
	경주 헌덕왕릉						8c중 9c초

[표 1] 신라의 매납형 십이지상 분류표

신라 능묘에서 십이지상이 처음 확인된 사례는 능 내부 부장형으로 경주 용강동 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십이지상이다. 1986년 발굴된 이 고분에서는 토용 28점과 함께 청동제 십이지상 9점 등이 출토되었다.[30]

청동제 십이지상의 위치는 현실(玄室) 내부의 북벽 중앙에 쥐(子)를, 현실 입구에 말(午)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3점씩 약 80cm 간격을 두고

29) 강대선은 매납식 십이지상으로 규정하고 크게 능묘 내부의 부장형, 능묘 호석 하부의 매납형, 능묘 외부의 매납형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강대선, 앞의 논문, 2017).

30)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경주시, 『경주용강동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각 벽면에 세워서 배치하였다.[31] 그러나 용(辰)과 뱀(巳)은 위치를 이탈하여 파편 일부만 출토되고 닭(酉), 개(戌), 돼지(亥)는 발견되지 않았다.[32] 능묘 내부에 십이지상을 각 간지(干支)에 맞게 배열되어 있던 것은 각 십이지가 해당하는 방위와 방향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중국 당대 능묘 십이지용(十二支俑)의 배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도 1] 경주 용강동 고분 청동제 십이지상 사진[33]

크기는 7~8.4cm 정도이며, 머리는 동물의 얼굴로 몸은 인간으로 표현된 수두인신형의 모습이다. 의복은 상반신이 나신(裸身)이며, 하반신에는 허리 아래에 혁대(革帶)를 두른 것처럼 띠가 있다. 발목까지 주름진 의복을 입고 있는데, 중앙이 나뉜 모습을 보아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신라의 십이지상 의복은 보통 무복과 문복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상반신이 나신으로 표현된 것은 경주 용강동 고분 출토 청동제 십이지상만의 특징이다. 팔의 형태는 팔이 결실된 쥐(子)와 소(丑)를 제외한 5점이 모두 가슴 앞으로 모아 오른쪽 손이 왼쪽 손을 덮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모두 공수(拱手) 형태로 추정된다. 양발 아래는 촉을 달아서 꽂아 세울 수 있는 형태로 판단된다.

31)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경주시, 위의 보고서, 1990, 74쪽.

32)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경주시, 위의 보고서, 1990, 74쪽.

33)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소(丑, 왼쪽 전면, 오른쪽 배면)　　토끼(卯, 왼쪽 전면, 오른쪽 배면)

[도 2] 경주 용강동 고분 청동제 십이지상 상세도[34]

십이지상의 위치와 공수(拱手)를 취하고 있는 형태는 중국의 십이지용과 유사한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 토제(土製), 도제(陶製)인 것과 다르게 경주 용강동 고분 십이지상은 청동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함께 매납된 다른 토용들은 모두 흙으로 제작된 것에 비해 십이지상만 청동으로 제작된 것은 신라인들이 십이지상을 다른 인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35]

경주 용강동 고분의 조영 시기는 함께 출토된 토용의 복식 분석을 통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반으로 추정된다.[36] 이는 십이지상이 외부 호석에 부조되기 시작하는 8세기 중엽보다 앞선 시기로, 경주 용강동 고분 청동제 십이지상이 신라 십이지상의 시원적 사례임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능 내부 부장형 십이지상은 경주 화곡리 화장묘에서 출토되었다. 1988년 화곡리에서 공사 도중 발견되어 수습되었다. 화장한 유골이 봉안된 골호(骨壺)로 사용된 유개호(有蓋壺)와 이를 넣어 보호하기 위한 석함, 석함의 둘레에 매납한 흙으로 빚어 구운 소조 십이지상 9점 등 모두 11점이 발견되었다.[37]

---

34)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경주시, 앞의 보고서, 1990, 76-77쪽.

35) 흙과 구별되는 특별한 재료의 사용은 십이지상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최상위계급의 위세품(威勢品)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강대선, 앞의 논문, 2017, 19-20쪽).

36) 김수민, 앞의 논문, 2023, 331-332쪽.

37) 한도식, 「慶州 花谷里 火葬墓」, 『신라문물연구』 3, 2009, 102쪽.

경주 화곡리 화장묘 소조 십이지상은 석함 둘레에 세워서 매납되었다. 정북쪽에 쥐(子)부터 마지막 돼지(亥)까지 각각의 방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호랑이(寅像)만이 완전한 상태로 원래의 위치에 놓여있었고, 개(戌), 돼지(亥), 쥐(子), 소(丑) 등은 유구의 정리과정에서 원래 놓인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끼(卯), 양(未), 원숭이(申), 닭(酉)은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남쪽에 놓였던 용(辰), 뱀(巳), 말(午)의 3점은 유구의 남쪽 일부가 중장비공사로 훼손되어 발견되지 않았다.[40]



[도 3] 경주 화곡리 화장묘 소조십이지상 사진[38]



[도 4] 경주 화곡리 화장묘 소조십이지상 출토 장면 사진[39]

머리는 동물 몸은 사람인 수두인신의 형태로 머리는 모두 오른쪽으로 향하고 몸체는 정면으로 향하게 표현하였다. 환조상의 형태이나 뒷면의 표현이 생략되어 부조상에 가깝다.[41] 두 손은 가슴 앞에 모아 공수 자세를 하고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의복은 긴 소매의 평복을 착용하고 있다.

경주 화곡리 화장묘의 골호는 경주 민애왕릉 주변에서 출토된 원화십년(元和十年)명 골호와 기형이 유사하여 조영시기를 9세기 초일 것으로 추정된다.[42] 경주 화곡리 화장묘는 불교식 장법(葬法)과 십이지상이 결합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밖에 다른 능묘에서 토기의 표면에 십이지 문자가

38)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39) 한도식, 위의 논문, 2009, 111쪽.

40) 한도식, 위의 논문, 2009, 102쪽.

41) 김수민, 앞의 논문, 2023, 340쪽.

42) 한도식, 위의 논문, 2009, 105쪽.

새겨진 예가 나타난다.[43] 석실분과 달리 매납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소규모 화장묘는 매납 공간의 변화에 따라 다시 동물 문양에서 문자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십이지를 새긴 것은 골호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주 전 민애왕릉 출토 납석제(蠟石製) 십이지상은 능묘 외부 매납형의 또 다른 중요 사례이다. 봉분 밑 외곽에 깊이 18cm, 지름 25cm의 12개의 구멍이 확인되었고, 납석으로 만든 십이지상의 4구가 발견되었다.



[도 5] 경주 전 민애왕릉 납석제 십이지상 사진[44]

이들은 무덤을 등진 채 능묘 외부를 향하는 방향으로 배치되었으며, 붉은 채색 흔적이 남아있는 입상으로 평복을 착용하고 공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제작 시기는 8세기대로 추정된다.[45] 경주 전 민애왕릉 납석제 십이지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덤을 등지고 외부를 바라보는 배치 방식이다. 이는 능묘 내부를 향한 공간적·시간적 표지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묘를 외부로부터 수호하는 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46]

마지막 능묘 외부 매납 호석형 단계의 사례로는 경주 소현리 석실분 출토 십이지상 호석을 들 수 있다. 경주 소현리 석실분은 매장주체부시설과 관련

43) 십이지 새김 뼈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출토지 미상으로 1914년에 구입하였다. 뼈항아리의 덮개 부분에 십이지 문자가 간격에 맞게 배치되어있다(국립중앙박물관, 『문자, 그 이후 한국고대문자전』, 국립중앙박물관, 2011, 182쪽).

44)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45) 김수민, 앞의 논문, 2023, 333쪽.

46) Yuan, Zhen, 「통일신라시대의 십이지상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16-17쪽.

시설인 제단이 일부 확인되었고 봉분 주변으로 호석이 조사되었다.[47] 받침석 사이에 2칸에 1개로 십이지상이 배치된 채 발견되었다.



[도 6] 경주 소현리 석실분 십이지상 호석 사진 (왼쪽 말, 오른쪽 토끼)[48]

이 십이지상은 모두 좌상에 평복 차림으로 표현되었다. 경주 소현리 출토 십이지상은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십이지상과 자세, 의복 표현 휘날리는 옷자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며, 이를 근거로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49] 특이한 점은 토끼(卯)상에서 붉은 안료를 이용한 채색 흔적이 확인된다. 앞에서 확인한 경주 전 민애왕릉 출토 납석제 십이지상에서도 붉은 안료로 채색한 흔적이 보인다. 주서(朱書)자료에서는 붉은 안료, 먹을 밀교승의 주술적인 관련이 있고 병을 일으키는 악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부적이나 주문을 적을 때 붉은색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았다.[50] 이런 점을 참고하였을 때 붉은 안료로 십이지상을 채색한 매납한 것은 방위의 의미뿐만이 아닌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능묘 외부 매납 호석형은 경주 김유신묘와 경주 헌덕왕릉 출토 납석제 십이지상을 들 수 있다. 두 능묘는 모두 납석제 십이지상이 호석 바깥쪽 능역 주변에 매납된 형태로 발견되었다. 경주 김유신묘와 경주 헌덕왕릉 납석제 십이지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전의 매납식 십이지상과 달리 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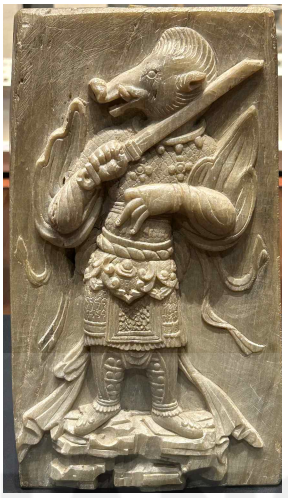
47) 한울문화재연구원, 『경주 소현리 유적Ⅱ』,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한울문화재연구원, 2015, 343쪽.

48)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

49) 강대선, 앞의 논문, 2017, 24-27쪽.

50) 이동주, 「한국 고대 朱書 자료의 검토」, 『동국사학』 77, 2023, 53-54쪽.

무장형이라는 점이다. 능묘 내부 부장 단계의 십이지상이 평복 차림으로 방위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면, 이 두 사례에서는 갑옷을 갖추고 무기를 든 전투적 수호신의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다. 이는 이후 신라왕릉 호석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무장형 십이지상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전 단계로 이해된다.[51]



[도 7] 경주 김유신묘 출토 납석제 십이지상 사진

단계별 매납 십이지상의 변화는 신라에서 십이지상이 묘실 내부에서 점차 묘역 외부로 이동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며 십이지상이 명기(明器)의 역할에서 능묘 공간 자체를 수호하는 기능을 점차 강화해 나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혀 다른 십이지상의 모습이 아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점차 양식의 변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붉은 채색을 통해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신라에서는 십이지상의 변화과정이 전개되어 결국 왕릉 호석에 부조로 새기는 독자적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51) 강대선, 앞의 논문, 2017, 40-44쪽.

제 3 장 호석의 장엄 십이지상 등장과 역할

앞선 2장에서 확인했듯이 신라의 십이지상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수용했으며, 능묘 내부 부장형 십이지상으로 처음 나타났다. 능묘 내부 부장형으로 먼저 수용한 십이지상은 이후 납석제에 새겨졌으며, 능묘 외부 매납 호석형의 단계를 거쳐 능묘 외부 호석에 등장하였다. 3장에서는 능묘 외부 호석에 장엄으로 등장한 십이지상의 모습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십이지상이 호석에 새겨질 수 있었던 필수요소인 호석의 변화과정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호석의 변화에는 불탑(佛塔)양식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십이지상이 장엄의 형식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2절에서는 호석의 변화과정 속에서 호석에 새겨진 십이지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 1 절 신라왕릉 호석의 변화와 불탑 양식의 수용

자연석을 쌓아 올린 초기의 호석이 치석(治石)된 장대석(長臺石) 호석 단계를 거쳐 면석, 탱석 조합 단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능묘는 점차 석탑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구조물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고 변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탱석이라는 새로운 부재가 마련되었고, 그 위에 십이지상을 부조하는 장엄 방식이 가능해졌다. 불탑의 탑신에는 사천왕(四天王), 팔부중(八部衆) 등 신장상(神將像)이 장엄되어 등장한다. 이는 십이지상이 호석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나타났으며, 호석 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하나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호석 구조의 변화는 단순한 축조 기술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불탑의 구조를 왕릉에 적용함으로써 왕을 석가모니와 동격으로 신격화하려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의 구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신라왕릉이 단순한 무덤의 형태에서 불탑의 성격을 지닌 신성한 공간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 전환의 완성이 호석 탱석에 십이지상을 부조하는 장엄 방식의 등장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호석이 자연석 단계에서 장대석 단계

를 거쳐 면석, 탱석의 단계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변화과정에서 영향을 준 불탑의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립간 시기의 왕릉은 대형 원형봉토분으로 조영되었으며, 무덤 내부는 돌무지덧널무덤으로 불리는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의 구조를 취하였다. 이후 무덤 양식은 횡혈식석실분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같은 시기 고구려와 백제의 무덤에서도 함께 확인되는 현상이다. 무덤 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거대하였던 왕릉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었고, 능묘의 입지 또한 평지에 모여서 조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산지 또는 경주 외곽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52)]

이 시기 주목할 변화로는 불교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불교의 수용과 확산은 왕릉의 조성 방식과 장례 절차 자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효성왕과 선덕왕의 경우처럼 시신을 화장하여 산골(散骨)한 사례가 있는 것은 일부 왕대에 이르러 별도의 봉분을 갖춘 왕릉이 조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라 중대에 접어들면서 왕릉의 규모는 오히려 축소되지만, 외형의 장식성은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선덕여왕릉과 무열왕릉은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여 호석을 둘렀지만, 뒤이은 신문왕릉 단계에서는 인위적으로 다듬은 장대석을 5단으로 쌓아 올리고 그 바깥에 받침석을 세우는 방식이 등장한다.



[도 8] 경주 선덕여왕릉 호석 사진



[도 9] 경주 신문왕릉 호석 사진

이 장대석 호석은 흙의 압력에 의해 벽체가 바깥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구조적 고안을 담고 있었다. 지대석 위에 쌓은 장대석은 아래 단

52) 차순철, 「신라왕릉의 입지와 환경」, 『대한풍수연구』 4, 2017, 17-37쪽.

일수록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각 단을 조금씩 안쪽으로 물려 쌓는 퇴물림 기법이 함께 관찰된다.[53] 이러한 들여쌓기 방식은 토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기적 해법이었으나, 받침석을 세워 벽체를 지탱하는 방식이 안정화되면서 그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었고, 그 결과 장대석 대신 판석 형태의 면석을 받침석에 기대어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54]

성덕왕릉 단계에 이르면 이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호석 형식이 나타난다. 장대석 대신 판석 형태로 다듬은 면석을 사용하고, 그 바깥으로 받침석과 난간석을 둘러 능역을 구획하여 조영하였다. 이후 경덕왕릉(도9)부터는 받침석이 사라지고, 탱석과 십이지신상을 새기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후 신라의 쇠퇴와 함께 왕릉의 규모는 축소되었다.



[도 10] 경주 성덕왕릉 호석 사진



[도 11] 경주 경덕왕릉 호석 사진

이 중 신라 능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시기는 성덕왕릉이 조영되는 8세기 중엽부터이다. 이 기간이 호석 구조에서의 비약적인 발달과 함께 불교문화의 영향과 당 능묘제도의 영향을 받아 신라만의 독창적인 능묘제도를 완성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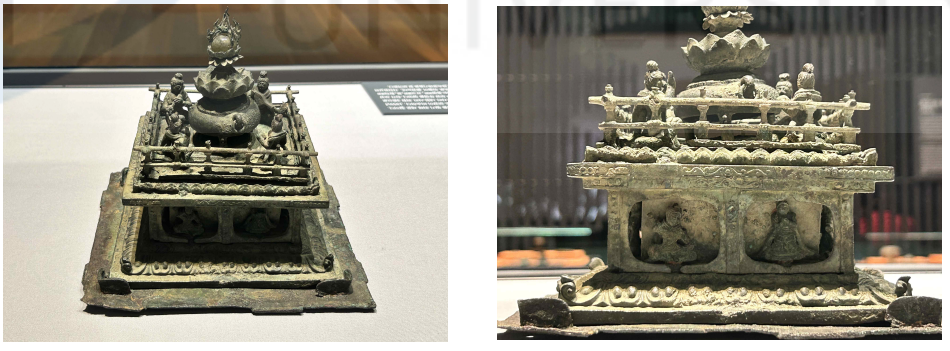
이후 경덕왕릉 단계에 이르러서는 받침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대신 면석과 면석 사이에 세운 탱석에 환조 혹은 부조의 십이지상을 새기는 방식으로 호석의 구조가 재편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새로운 부재에 붙여진 탱석(撐石) 또는 탱주(撐柱)라는 명칭 그 자체이다. 탱석, 탱주는 본래 불탑 기단의 면석과 면석 사이에 세우는 기둥을 가리키는 용어였는데, 이 명칭이

53) 최영준, 앞의 논문, 2022, 11쪽.

54) 최영준, 앞의 논문, 2022, 13-15쪽.

능묘 호석의 부재에 그대로 옮겨 붙여졌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신라인들이 능묘의 구조를 석탑과 같은 계통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55]

이러한 인식은 실제 불탑 유구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634년에 창건된 분황사 모전석탑은 자연석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기단과 탑신을 쌓아 올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7세기대 장대석으로 호석을 두른 신문왕릉 형식의 능묘와 축조 방식의 계통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56] 나아가 분황사 모전석탑은 기단 위 네 모퉁이에 석사자상을 한 마리씩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배치는 성덕왕릉 이후 신라왕릉에서 봉분 주위 대지의 네 귀퉁이에 석사자상을 세우는 방식과 상통한다. 이는 당 황제릉에서 석사자상을 능원 사방 출입구 양쪽에 한 쌍씩 세워 능원의 출입을 지키게 한 방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신라왕릉의 석사자 배치가 중국 황제릉의 제도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석탑의 형식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변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57] 능묘를 조영할 때 지켜야 했던 위계에 따른 석물 배치의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왕을 부처와 동격의 존재로 신격화하려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왕릉 자체를 불탑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조성하는 길을 택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도 12] 경주 감은사 터 서삼층석탑 사리엄구 사리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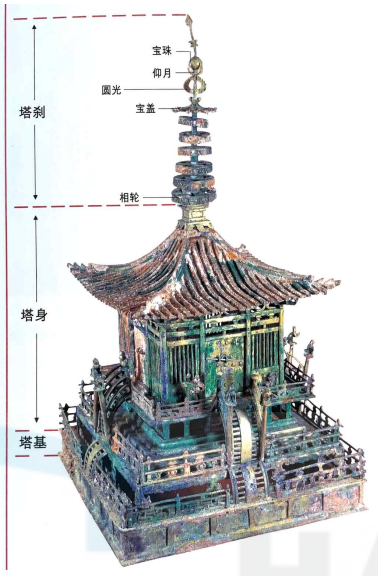
이뿐만이 아닌 사리엄구를 통해서도 비슷한 양식이 확인된다. 장엄 양식과 탑과 비슷한 양식은 사리엄구에서도 확인된다. 경주 감은사 터 서삼층석탑 3

55) 최영준, 앞의 논문, 2022, 50쪽.

56) 최영준, 앞의 논문, 2022, 50-51쪽.

57) 최영준, 앞의 논문, 2022, 51쪽.

층 탑신에서 발견된 사리엄구로 사리를 모시기 위한 청동제 사각형 사리외함 내에 발견된 사리내함이다. 사리내함을 보면 안상을 새기고 신장상 및 공양보살상을 배치하였으며, 기단의 맨 위에는 난간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양식은 중국 법문사 금동부도에서도 볼 수 있다. 목조 건축물을 연상케하는 모습은 석탑의 발전과정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기단과 면·기둥, 난간으로 구성된 이러한 모습은 석탑의 구성과 비슷하다. 목조 건축물, 목탑에서 석탑으로 변화과정 속에서 비슷한 양식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도 13] 중국 법문사 금동부도[58]

그래서 석탑에서 영향을 받은 능묘 호석의 구성은 난간석을 두루고, 면석과 탱석으로 구성된 호석에 장엄양식인 십이지상을 생겼을 것이다.

58) 尹夏清,『中华文明传真6-隋唐 帝国新秩序』, 上海辞书出版社 商务印书馆(香港), 2001, 110쪽.

제 2 절 신라능묘의 호석 장엄 십이지상 등장

능묘에서 매납형으로 등장했던 십이지상은 호석에 새겨지면서 능묘 외부에 봉분을 두르고 있는 양식을 등장한다. 이러한 십이지상이 확인되는 능은 총 10기이다. 경주 성덕왕릉, 경주 원성왕릉, 경주 경덕왕릉, 경주 헌덕왕릉, 경주 흥덕왕릉, 경주 진덕여왕릉,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 경주 김유신묘, 경주 능지탑지, 경주 구정동 방형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식 구분	능	탱석	받침석	난간석	호석 구조	조영방식	복장
1기	성덕왕릉	30	o (탱석마다 받침석 배치)		갑석+탱석,면석+지대석+받침석+박석+난간지대석+난간주	환조, 입상	갑옷
2기	황복사 동편 폐고분지	8개만 발견, 1개는 능지탑 평복으로 추정	x	x		부조(평면각), 탱석	평복
	전김유신묘	24(십이지 사이 1개 탱석 추가)	x	o	갑석+탱석,면석+지대석+박석(2개)+난간지대석+난간주	부조(평면각), 탱석	평복
	능지탑	12(12개중 9개만 십이지)	x	x		부조(곡면각, 평면각), 탱석	갑옷/평복(1개)
	전경덕왕릉	36(십이지 사이 2개 탱석 추가)	x	o	갑석+탱석,면석+지대석+박석+난간지대석+난간주	부조(곡면각), 탱석	갑옷
3기	원성왕릉	36(십이지 사이 2개 탱석	x	o	갑석+탱석,면석+지대석+박석+난간지대석+난간주	부조(곡면각), 탱석	갑옷

		추가)					
	전헌덕왕릉	48(십이지 사이 3개 탱석 추가)	x	o	갑석+탱석,면석+지대석+박석(2개)+난간지대석+난간주	부조(평면각), 탱석	평복
	흥덕왕릉	36(십이지 사이 2개 탱석 추가)	x	o	갑석+탱석,면석+지대석+박석+난간지대석+난간주	부조(곡면각), 탱석	갑옷
4기	구형동방형분	12	x	x	갑석+탱석,3단면석,우주석(4개)+지대석+경계석	부조(곡면각), 탱석	갑옷
	전진덕여왕릉	24(십이지 사이 1개 탱석 추가)	x	x	갑석+탱석,면석+지대석	부조(평면각), 탱석	갑옷

[표 2] 신라왕릉 십이지상 분류표

호석에 등장한 십이지상은 환조(丸彫)로 조영된 성덕왕릉을 제외하고 모두 부조(浮彫)로 새겨져 있다. 이는 왕릉 주위를 두르고 있는 호석 양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호석 구조의 변화는 십이지상으로 장엄된 호석이 등장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였다.[59]

능 외부 호석에 등장하는 사례의 처음은 성덕왕릉이다. 성덕왕릉의 조성은 성덕왕의 뒤를 이은 효성왕대에 봉분과 탱주, 받침석이 조영되었으며, 효성왕의 뒤를 이은 경덕왕대에 십이지상과 회랑, 난간석 등 석물이 완성된 것으로 이해된다.[60] 효성왕대에 처음부터 십이지상 배치를 계획하였다면 받침석의 수가 십이지상 배치에 맞추어 설계되었을 것이다. 또한 십이지상은 이동되지 않도록 그 밑에 고리가 달려있으며 이들이 위치한 바닥 판석도 정방형 구멍이 뚫려있어 십이지상을 고정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받침석의 개수가 맞지 않고, 방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성덕왕릉의

59) 이근직, 앞의 책, 2012, 245쪽.

60) 성덕왕릉의 호석은 효성왕대에 시작하여 경덕왕대에 개축했을 것으로 보며, 그 시기를 성덕왕비가 세워진 경덕왕 13년(754)으로 보았다(강우방, 앞의 책, 1990, 322쪽).

호석은 처음부터 십이지상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61]

봉분 조성은 시작은 효성왕대에 착수되었으나, 성덕왕릉의 현재 모습에는 개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성덕왕릉 석물은 성덕왕비가 세워지는 경덕왕 13년(754)[62] 이전에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이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던 승탑과 탑비를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라 하대 선사들의 탑과 탑비 제작과정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탑비는 승탑보다 더 늦게 완성된다. 이는 문도들이 행장을 모아 왕에게 주청하여 시호와 탑호를 받고, 왕이 지목하는 문사가 비문을 짓는 기간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덕왕릉 역시 왕릉 석물의 마지막에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63]

성덕왕릉 다음으로는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 전김유신묘, 능지탑, 전경덕왕릉이 제작되었을 것이다.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 전김유신묘의 십이지상 복장은 평복으로 다른 무장형의 십이지상과 다른 양식이 확인된다. 그러나 복장은 평복이지만 지물로 칼이나 도끼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호의 의미는 지니고 있을 것이다. 다음 등장하는 능지탑은 호석 중 하나가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일 가능성이 있어 두 호석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경주 경덕왕릉은 무복 갑옷의 부조 십이지상으로 표현되었다. 양식상으로 보았을 때 십이지상의 도상이 제일 화려하며 양식이 능지탑의 무신형 십이지상과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원성왕릉은 『三國史記』에서 유명(遺命)에 따라 관[柩]을 옮겨 봉덕사(奉德寺) 남쪽에서 화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64] 그러나 『三國遺事』에서는 능은 곡사(鵠寺)에 있으니, 지금의 숭복사(崇福寺)이다. □원(□遠)의 비가 서있다고 기록되어 있다.[65] 또한 『三國遺事』 왕력과 권2 기이제2 원성대왕조에 의하면 원성왕릉은 토함산(吐含山) 서동(西洞) 곡사(鵠寺)에 있는데, 지금의 숭복사(崇福寺)라고 하면서,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비문을 담은 석비가 있다.

---

61) 강우방, 앞의 책, 1990, 322쪽.

62) 『三國史記』 卷9, 新羅本紀 9, 景德王 13年 "五月, 立聖德王碑."

63) 강삼혜, 앞의 논문, 2025, 98쪽.

64)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 14年 "冬十二月二十九日, 王薨. 諡曰元聖, 以遺命擧柩燒於奉德寺南."

65) 『三國遺事』 卷1, 王曆, 元聖王 "陵在鵠寺, 今崇福寺有也. □遠所立碑."

「경주 숭복사비(慶州 崇福寺碑)」를 보면, 원성왕이 파진찬 김원량이 세운 곡사에 왕릉을 만들 것을 명하였다고 한다. 이에 곡사를 옮기고 원성왕릉을 조영하였으며, 헌강왕대에 곡사를 크게 중창하고 이름을 숭복사(崇福寺)로 고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이 남긴 숭복사 비명에 의하면 경문왕은 왕위를 이어받은 원년(861) 원성대왕을 추복하고자 곡사와 원성왕릉을 정비할 뜻을 세우고, 865년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885년 헌강왕이 숭복사 중창을 마무리 짓고, 곡사를 대숭복사(大崇福寺)로 사명을 바꾸었다. 이듬해 최치원에게 숭복사 비문을 짓게 하여 진성여왕대 숭복사 중창이 완성되었다. 이를 통해서 숭복사와 원성왕릉 조영에 관한 내용이 함께 병렬적으로 기술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66] 원성왕의 유훈으로 숭복사에 이전하고 그곳에 왕릉 세우기를 원함에 따라, 숭복사를 옮기고 왕릉을 조성하는 두 가지 역사를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다. 원성왕릉은 경문왕에 의해 수개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정비하며 왕릉을 옮겨 조영하는 과정에서 호석에 조각을 새겼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흥덕왕릉은 관련 기록을 통해 피장자를 비교적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三國史記』에는 조정(朝廷)이 왕의 유언에 따라 장화왕비(章和王妃)의 능에 합장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67] 또한 『三國遺事』에도 능이 안강(安康)의 북쪽 비화양(比火壤)에 위치하며, 왕비 창화(昌花)와 합장되었다고 전한다.[68] 이에 따라 흥덕왕릉은 단독 무덤이 아닌 기존에 조성된 왕비릉에 합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왕비릉에 합장이 이루어진 이후 십이지상 호석을 두르고 석인상과 사자상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69] 왕릉의 입구 부분에는 능역을 표시하는 화표석(華表石)과 흥덕왕릉비 귀부가 남아있다. 예서체로 “흥덕(興德)”이라고 쓰인 이수의 제액편이 발견되어 피장자가 흥덕왕임이 입증되었다.

---

66) 강삼혜, 앞의 논문, 2025, 103쪽.

67)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10, 興德王 11年 “冬十二月, 王薨, 謚曰興德. 朝廷以遺言, 合葬章和王妃之陵.”

68) 『三國遺事』 卷1, 王曆, 興德王 “陵在安康北比火壤, 與妃昌花合葬.”

69) 『三國史記』에서 왕비와 합장했다는 사실을 따로 기술한 것은 보통 왕의 능에 왕비를 합장하는 통상적인 예와 달랐기 때문으로 보고, 처음부터 왕비릉에 호석이 마련된 것이 아닐 것으로 추정하였다(임영애, 「신라 왕릉 조각의 미술사적 조망과 특수성」, 『신라문화』 41, 2013).

흥덕왕릉비의 건비 시기와 흥덕왕릉 십이지상의 조성 연대는 872~884년 경으로 비정되고 있다. 또한 흥덕왕릉 비편 중에 '병부시랑(兵部侍郞)'이라는 한식(漢式) 관직명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관서의 관직명을 중국식으로 전면 개정한 시기가 경문왕 12년(872년) 이후로 추정되므로 흥덕왕릉비의 건비 시기를 872년 이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70]

이러한 호석에 등장한 십이지상은 중국에서 수용된 후 모든 왕릉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무장형에 무기를 든 모습이 나타나도 양식이 달라 같은 십이지상의 모습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라 십이지상은 왕릉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석조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4장에서는 십이지상의 확산과 변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HANSUNG UNIVERSITY

70) 임영애, 20213, 152쪽.

제 4 장 십이지상 문화의 확산과 변용

앞선 2,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라의 십이지상은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 능묘 내부의 부장품으로 처음 수용된 이후, 8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능묘 외부 호석으로 조영 위치가 이동하였다. 능묘에서 등장한 십이지상은 능묘 이외에 불교 석조물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십이지상 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조형적 영향이 아니라 신라 사회에서 십이지상이 지닌 상징과 기능이 불교적 맥락과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4장에서는 능묘 이외에 십이지상 문화가 등장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이후 십이지상의 변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라에서 수용된 십이지상이 독자적인 양식으로 정착하고 이후 보편화되어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십이지상이 등장하는 불교 석조물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석탑이다. 신라 중·하대에 이르러 석탑은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구조물이라는 신앙적 측면을 넘어 호국적 이미지가 포함되는 등 건탑의 목적에서 다양성을 지니게 된다.[71] 그래서 석탑에 장엄 양식을 두르기 시작하였다.

석탑명	초층탑식	상층기단	하층기단	지역	추정 조성 시기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천왕	십이지상	–	경북 경주	8c중 8c후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	–	팔부신중	십이지상	경북 안동	9세기
안동 임하리 십이지 삼층석탑	–	팔부신중	십이지상	경북 안동	9세기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사천왕	팔부신중	십이지상	경북 영양	9세기
영양 현리 삼층석탑	사천왕	팔부신중	십이지상	경북 영양	9세기

71) 박경식, 「한국 불탑 부조상의 기원 고찰」, 『동양학』 67, 2017, 160쪽.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사천왕	팔부신중	십이지상	전남 구례	9세기

[표 3] 신라의 십이지상 장엄 석탑 분류표

십이지상이 장엄 된 석탑은 [표 3]에 나와 있는 총 6개의 석탑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십이지상이 불교 석조물에 새겨진 가장 이른 사례는 경주 원원사지(遠願寺址) 동·서 삼층석탑이다.

경주 원원사는 밀교의 후계자인 안혜(安惠)·낭융(朗融) 등과 김유신(金庾信)·김의원(金義元)·김술종(金述宗) 등과 국사를 논의하던 중요한 인물들이 함께 뜻을 모아 세운 사찰임을 알 수 있다.[72] 경주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8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천왕상과 십이지상이 처음으로 조합되어 나타난 사례이다.[73]

원원사지 동·서 삼층석탑에 등장하는 십이지상 도상은 수두인신형(獸頭人身形)으로 복장은 무복이 아닌 평복으로 천의를 날리며 좌상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손은 합장이나 공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상이 연화대좌 상부에 조성되어 있다. 신라의 불교 미술 도상에서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는 상은 신상의 지위가 아닌 불보살의 불격일 가능성이 높다.[74] 능묘 호석의 십이지상이 무복(武服)을 입고 무기를 지닌 형태로 표현된 것과 달리, 석탑의 십이지상이 평복에 불교적 도상이 보이는 것은 수용 맥락이 달랐음을 보여준다.



[도 14] 경주 원원사지(遠願寺址) 동·서 삼층석탑

72) 『三國遺事』 卷5, 神呪, 明朗神印 "...又新羅京城東南二十餘里有遠源寺, 諺傳安惠等四大德與金庾信·金義元·金述宗等同願所創也."

이후 9세기에 들어 석탑 기단부에 십이지상을 배치하는 양상이 더욱 발전하였다. 9세기 석탑에서는 사천왕상과 십이지상에 더해서 팔부중상(八部衆像)까지 세 도상의 조합이 완성되었다. 영양 현리 삼층석탑,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에서 확인된다.

이들 석탑은 9세기 중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의 석탑으로서, 1층 탑신에 사천왕상, 상층기단에 팔부중상, 하층 기단에 십이지상이 배치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영양 현리 삼층석탑,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의 십이지상은 영양이라는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위의 상들끼리 시선 방향이 다르고 지물(持物) 형태도 대부분 서로 달라, 각기 다른 도상본(圖像本)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복수의 석공 집단이 서로 다른 조형을 바탕으로 석탑을 제작하였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75] 또한 9세기 신라 경주 밖 지방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십이지 도상이 지역적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불교 석조물로 확산이 된 십이지상은 신라 석조 장엄 양식의 변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천왕상, 팔부중상, 십이지상이 하나의 석탑에 조합되는 현상은 신중체계의 위계 구성을 의미한다. 이는 십이지상이 능묘에서 방위와 시간을 상징하고 능묘의 수호신으로 기능하던 것에서, 불교 석조물 안에서 위계적 신중 체계의 일원으로 통합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석탑의 장엄 부조상이 사천왕상 위주에서 팔부중상을 포함한 다종(多種)신중상으로 확장되었고, 여기에 십이지상이 더해지면서 탑의 위치에 따라 위계화된 신중 체계로 장엄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십이지상 문화의 확산은 불교 석탑 이외에 탑비(塔碑), 부도(浮屠), 공예품 등으로도 이어졌다. 경주 암곡동 아미타불조상사적비의 비좌(碑座) 네면에 갑옷을 입고 무기를 쥔 좌상의 십이지상이 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입상으로 조각하기에 협소한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좌상으로 표현되었지만[76], 무

---

73) 석탑의 조성시기는 사찰의 창건 시기와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보고 원원사지 금당지와 기단, 초석, 석등 등 다양한 석조물의 조성 시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세기 중 후반으로 판단하였다(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신라사학보』 35, 2015).

74) 오세덕, 위의 논문, 2015, 150쪽.

75) 한재원, 「영양 현리와 화천리 삼층석탑 연구 - 탑부조상(塔浮彫像)의 도상 분석을 중심으로」,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3.4, , 2020, 257-260쪽.

복과 무기를 들고 있어 능묘 호석 십이지상의 양식적 특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부도에는 평복을 입고 입상의 형태의 수두인신형 십이지상이 부도 표면에 조각되어 있다. 이처럼 신라의 십이지상은 능묘조각에서 출발하여 석탑, 탑비, 부도, 공예품 등 여러 방면으로 확산이 되어 활용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그러나 신라왕릉에서 확인되는 십이지상은 9세기 말 이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9세기 말의 신라는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지방 세력의 성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고 능묘 조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 시기였다. 십이지상 도상이 단순화되며 호석 양식의 변화가 보이고 결국 더 이상 신라왕릉에서 확인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십이지상이 능묘 호석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여 도상 자체가 소멸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능에 계속해서 등장한다.

신라 하대를 살펴보면 신라 하대의 시조라고 불리는 원성왕이 즉위하고[77] 사후[78] 신라의 왕위계승은 반란과 시해로 왕위쟁탈이 연속으로 전개되었다.[79] 원성왕 사후 799년부터 경문왕이 즉위한 원년인 861년까지 대략 60년 동안 총 9번의 왕위교체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2~3년의 짧은 기간 재위한 왕도 존재한다.[80] 이후 경문왕과 헌강왕이 즉위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진성여왕 이후 정국의 혼란[81]은 능묘조각의 추가 제작이나 정비를

76) Yuan, Zhen, 앞의 논문, 2017, 16쪽

77)『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 元年“元聖王立.”

78)『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10, 元聖王 14年“冬十二月二十九日, 王薨.”

79) 41대 헌덕왕(憲德王)이 40대 애장왕(哀莊王)을 시해하고(『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10, 哀莊王 10年“王叔父彦昇與弟伊湌悌邕, 將兵入內, 作亂弑王.”), 44대 민애왕(閔哀王)은 반란을 일으켜 43대 희강왕(僖康王)이 목을 매어 죽게 만들었으며(『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10, 僖康王 3年“上大等金明·侍中利弘等, 興兵作亂, 害王左右, 王知不能自全, 乃縊於宮中.”), 45대 신문왕(神武王)이 민애왕(閔哀王)을 시해하였다(『三國史記』卷10, 新羅本紀 10, 閔哀王 2年“... 兵士尋而害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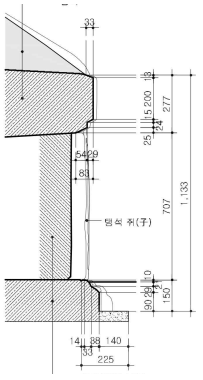
80) 39대 소성왕 2년(800), 40대 애장왕 10년(809), 43대 희강왕 3년(838), 44대 민애왕 2년(839), 45대 신무왕 원년(839), 47대 헌안왕 5년(861)으로 짧은 시기 재위하였다(「三國史記」 권10-11, 신라본기 10-11).

81)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으며(『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11, 眞聖王 3年), 견훤이 완산에 후백제를 세우고(『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11, 眞聖王 6年), 궁예가 장군을 자칭하며 습격하며 북원(北原)에서 하슬라(何瑟羅), 철원(鐵圓) 등 공략하며 내려오고 있었다(『三國史記』卷11, 新羅本紀 11, 眞聖王 5年, 8年, 9年).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결국 신라 말 왕릉에서 십이지상은 더 이상 새롭게 조영되지 않았다. 능묘조각이 왕의 사후 즉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왕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에 따라 수십 년의 시차를 두고 제작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신라 말의 정국 상황은 능을 조영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83]



[도 15] 경주 진덕여왕릉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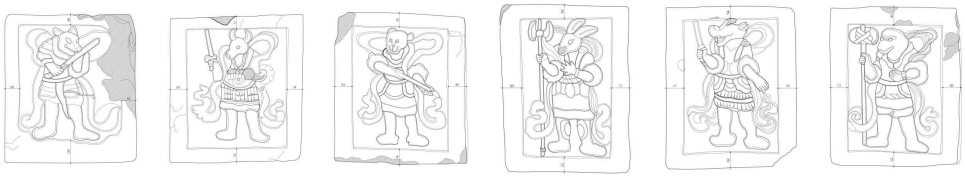


[도 16] 경주 진덕여왕릉
좌측 호석 구조 상세도[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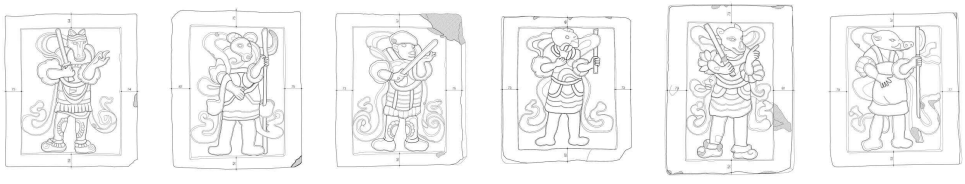
이러한 신라의 상황 속에서 왕릉을 이전처럼 웅장하게 조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화려한 양식으로 조영된 다른 능과는 다르게 십이지상의 모습은 간단하고 단조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9세기 중엽에서 9세기 말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보는 경주 진덕여왕릉은 호석의 구조에서 난간석과 박석이 사라지고 봉분을 직접적으로 두르고 있는 갑석, 탱석, 면석, 지대석만 남아있다. 또한 탱석의 크기가 예전에 비해 작아졌으며, 전반적인 조영 수준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경주 진덕여왕릉을 마지막으로 경주 신라에서 호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8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라왕릉Ⅱ현황조사보고서[도면편]』, 2013, 72쪽.

83) 숭복사비 명문을 통해 원성왕릉의 이장과 석상의 시기를 경문왕대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왕릉 석물 조각이 피장자의 사망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다(임영애, 앞의 논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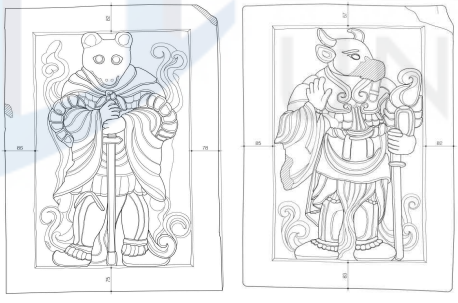
쥐(子) 소(丑) 호랑이(寅) 토끼(卯) 용(辰) 뱀(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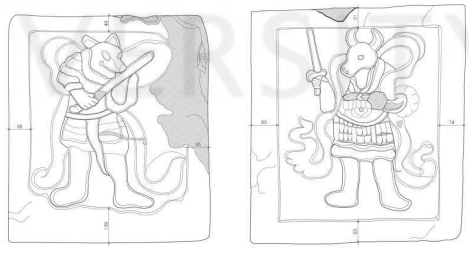
말(午) 양(未) 원숭이(申) 닭(酉) 개(戌) 돼지(亥)

[도 17] 경주 진덕여왕릉 십이지상 상세도[84]

호석의 구조가 축소되며 호석에 새겨진 십이지상의 모습도 단순화되었다. 이전에 조영된 십이지상의 모습들과 달리 크기가 작아지고, 천의의 표현 방식도 단순화되었으며 갑옷의 표현도 단순화되고 생략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도 18]와 [도 19]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18] 경주 흥덕왕릉
쥐(子), 소(丑) 상세도[85]



[도 19] 경주 진덕여왕릉
쥐(子), 소(丑) 상세도[86]

더 이상 신라왕릉 호석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앞서 확인했듯이 석탑에서는 십이지상의 도상이 기단부를 장엄하는 수호의 신중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확인된다. 이는 십이지상이 능묘라는 특정 영역을 넘어 불교문화까지 광범위하

8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위의 보고서, 2013, 73-95쪽.

8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위의 보고서, 2013, 251쪽.

86)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위의 보고서, 2013, 75쪽.

게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도상이 단순화되고 변화하는 양상이 보이지만, 십이지상 자체의 의미가 신라문화 안에 정착되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십이지상은 완전히 소멸이 되지 않고,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왕릉 문화의 연속성을 형성하고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먼저 고려의 사례를 확인하면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에서 십이지상의 모습이 확인된다. 하층 기단 면석 각 면에 세 칸의 안상을 두고 그 내부에 십이지상을 배치했다.

고려왕릉의 제도는 통일신라의 경주 성덕왕릉, 경주 경덕왕릉, 경주 흥덕왕릉의 능묘 체계를 계승하였으며, 고려 태조현릉(太祖顯陵)에서도 십이지상이 나타난다.[87] 봉분 아래 12각형의 병풍석(屛風石)을 조영하고 면석(面石)에 십이지상을 조각하는 방식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라에 비해 봉분의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십이지상의 크기도 줄어들었고, 조각 기법에서도 생략된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신라 말 왕릉 조영 체계의 쇠퇴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88] 고려 전기 왕릉의 십이지상은 신라에서 확인되는 십이지상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머리와 평복 차림의 사람 몸을 가진 수두인신형(獸頭人身形)으로 표현되었다.

이후 고려 말 공민왕릉(恭愍王陵)인 현릉(玄陵)과 정릉(正陵)에 이르면 문관의 복장을 입고 홀(笏)을 쥔 인면인신상(人面人身像)이 나타나고, 관모(冠帽) 중앙에 해당 동물을 표현한 수관인신상(獸冠人身像)으로 변모하는 도상 전환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석(隅石)에는 영저(靈杵), 영탁(靈鐸) 등 불교 법구(法具)가 함께 조각되어 왕릉에 불교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89]

고려 이후 조선 초기 십이지신상 도상은 고려 말 현릉과 정릉의 제도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태조에서 선조에 이르기까지 왕릉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십이지신상의 도상도 함께 변화하였다. 병풍석의 유무에 따라 십이지신상 도상 또한 변화가 생겼으며, 결국 조선 전기 내내 왕릉 석물의 중요한 구

87) 지혜정, 「조선 전기 왕릉 십이지신상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0-11쪽.

88) 지혜정, 위의 논문, 2015, 11쪽.

89) 지혜정, 위의 논문, 2015, 12쪽.

성 요소로 지속되었다.[9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의 십이지상은 능묘뿐만이 아닌 불교 석조물에서도 등장한다. 이는 십이지상이 처음에는 능묘에서만 보이는 특수적인 양식이었다면 신라에서 불교와의 융합으로 인해 장엄의 의미가 강화되었으며, 이후 보편화되어 나타나는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십이지상은 신라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문화가 아니며 이후 고려와 조선의 왕릉까지 등장하는 것을 통해 왕릉이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의 전승으로 볼 수 있다.

HANSUNG UNIVERSITY

90) 지혜정, 위의 논문, 2015, 13쪽.

제 5 장 맺 음 말

본 연구는 신라에서 십이지상이 수용되어 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검토함으로써, 십이지상이 신라 사회에서 지닌 의미의 변화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십이지상 기원과 발전 양상을 살펴보고, 신라에서 십이지상이 수용된 이후 능묘 내부 부장형에서 호석 부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 나아가 불교 석조물로 확산되며 신라 쇠퇴기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계승되는 전개까지 검토하였다.

신라의 십이지상은 7세기 후반 당대 문화의 영향 아래 능묘 내부 매납의 방식으로 처음 수용된 이후, 능묘 외부 매납과 호석 부조를 거쳐 8~9세기 신라 왕릉 조각의 핵심 요소로 완성되었다. 이후 9세기 말 이후 신라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능묘에서의 십이지상 조영은 쇠퇴하였으나, 불교 석조물에서 장엄의 요소로 지속되었고, 고려와 조선의 왕릉 문화로 계승되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신라 십이지상의 수용은 중국 당대 능묘 문화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으나, 조영 위치와 도상 형식에서 독자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능 내부 매납에서 능 외부 호석으로 이동, 그리고 무장형 복장의 도상은 신라가 중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 종교, 상황의 맥락 속에서 독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둘째, 십이지상의 조영 위치 변화는 그 기능과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능묘 내부에서는 방위와 시간을 상징하는 부장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능 외부 호석으로 이동한 이후에는 능묘 수호와 왕권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이 부각되었다. 이는 십이지상이 단순한 장식 요소가 아니라 정치적, 의례적 목적을 담은 상징체계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셋째, 십이지상 문화의 확산은 십이지상이 능묘라는 특수한 영역을 넘어 신라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능묘에서 진묘와 방위 수호를 담당하던 십이지상이 불교 석조물 안에서는 사천왕상, 팔부중상과 함께 위계적 신중 체계의 일원으로 통합되어, 불법 수호와 사찰 장엄의 역할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은 십이지상의 의미가 특수성에서 보편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잘 드러낸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2. 단행본

姜友邦,『圓融과 調和』, 열화당, 1990.

박경식,『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이근직,『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12.

3. 논문

강대선,「新羅 陵墓의 埋納式 十二支像 硏究」,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강삼혜,「통일신라 왕릉 십이지상의 도상과 양식 고찰-승탑 탑신 신장상과의 상호 연관성을 중심으로-」,『신라문화』66,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5.

姜友邦,「統一新羅十二支像의 樣式的 考察」,『미술사학연구』154·155, 한국미술사학회, 1982.

김만태,「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에 대한 근원적 고찰」,『민족문화연구』5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

김수민,「신라 횡혈식석실묘의 십이지상과 진묘 인식」,『민족문화논총』8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3.

김용성,「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역사논총』1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2.

김용성·강재현,「신라 왕릉의 새로운 비정」,『야외고고학』15, 한국문화유산협회, 2012.

김은선,「朝鮮 王陵 十二支神像 硏究」,『동악미술사학』15, 동악미술사학회, 2013.

김지연,「조선왕릉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의 도상(圖像) 원류와 전개과정」,『헤리티

지:역사와 과학』42.4, 국립문화재연구원, 2009.
김창겸, 「통일신라시대 왕릉의 불교적 시설과 능사」, 『역사논총』 31,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9.
박경식, 「한국 불탑 부조상의 기원 고찰」, 『동양학』 6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박형열, 이지향, 「신라 십이지신상 능묘의 특징과 순서에 대한 일고찰」,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5.2, 국립문화재연구원, 2022.
배노찬, 「統一新羅 王陵의 編年과 被葬者 比定」,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서남영, 「신라 능묘에 보이는 국제교류 – 獸頭人身 武將形 十二支像을 중심으로 –」, 『신라문화』 65,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24.
孫景穗, 「韓國 十二支生肖의 硏究」, 『梨大史苑』 4,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62.
손명순, 「新羅 土偶 硏究: 現況과 變遷을 中心으로」,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심영신, 「고려 전기 불교미술의 지역성 고찰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부조 신장상을 중심으로–」, 『숭실사학』 48, 숭실대학교 역사문물연구소, 2022.
오세덕, 「遠願寺址 석조물의 조성시기와 가람배치 변화 추정」, 『신라사학보』 35, 신라사학회, 2015.
위엔쩐(Yuan, Zhen), 「통일신라시대의 십이지상에 대한 연구」,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이근직, 「신라 왕릉의 기원과 변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이동주, 「한국 고대 朱書 자료의 검토」, 『동국사학』 77,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23.
이종관, 「갑골문에 나타난 십간과 십이지 형태에 대한 고찰(考察)」, 『인문사회21』 7.4, 인문사회21, 2016.
임영애, 「신라하대 왕릉 조각의 완성, 원성왕릉 조각의 제작시기 재검토」, 『불교미술사학』 14, 불교미술사학회, 2012.
임영애, 「신라 왕릉 조각의 미술사적 조망과 특수성」, 『신라문화』 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장호진, 강량지, 「신라 황복사지(皇福寺址) 동편 폐고분지(廢古墳址)의 성격」,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3, 국립문화재연구원, 2020.
지혜정, 「조선 전기 왕릉 십이지신상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차순철, 「신라왕릉의 입지와 환경」, 『대한풍수연구』 4, 대한풍수연구학회, 2017, 17-37쪽.
최민희, 「12지신상의 연원에 관한 고찰(Ⅰ)」, 『경주문화논총』 13, 경주문화원 부설향토문화연구소, 2010.
최영준, 「신라 중하대 능묘 호석 구조의 변천」,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2.
한도식, 「慶州 花谷里 火葬墓」, 『신라문물연구』 3, 국립경주박물관, 2009.
한재원, 「영양 현리와 화천리 삼층석탑 연구 - 탑부조상(塔浮彫像)의 도상분석을 중심으로」,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53.4, 국립문화재연구원, 2020.

4. 도록 및 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Ⅲ』,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석탑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국립중앙박물관, 『문자, 그 이후 한국고대문자전』, 국립중앙박물관, 2011.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경주시, 『경주용강동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라왕릉Ⅱ현황조사보고서[도면편]』,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
한울문화재연구원, 『경주 소현리 유적Ⅱ』,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한울문화재연구원, 2015.
尹夏清, 『中华文明传真6-隋唐 帝国新秩序』, 上海辞书出版社 商务印书馆(香港), 2001.

부 록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출토지</th><th>위치</th><th>재질</th><th>형상</th><th>복장</th><th colspan="2">조각형식</th></tr>
<tr><td rowspan="6">매납형
십이지상</td><td rowspan="2">능묘
내부
부장형</td><td>경주
용강동고분</td><td>석실 내부</td><td>청동제</td><td>입상</td><td rowspan="4">평복</td><td colspan="2" rowspan="2">환조</td></tr>
<tr><td>경주
화곡리 화장묘</td><td>석함 주변</td><td>토제</td><td rowspan="3">좌상</td></tr>
<tr><td>능묘
외부
매납형</td><td>경주
전 민애왕릉</td><td rowspan="2">능묘 외부</td><td>납석제</td><td colspan="2" rowspan="3">부조</td></tr>
<tr><td rowspan="3">능묘
외부
매납
호석형</td><td>경주
소현리 고분</td><td>석제</td></tr>
<tr><td>경주 김유신묘</td><td rowspan="2">호석 밑</td><td rowspan="2">납석제</td><td rowspan="2">입상</td><td rowspan="2">무복</td></tr>
<tr><td>경주 헌덕왕릉</td></tr>
<tr><td colspan="2" rowspan="11">호석 십이지상</td><td>경주 성덕왕릉</td><td>호석 주위</td><td rowspan="11">석제</td><td rowspan="11">입상</td><td rowspan="3">무복</td><td colspan="2">환조</td></tr>
<tr><td>경주 경덕왕릉</td><td rowspan="10">호석 탱석</td><td rowspan="10">부조</td><td>곡면각</td></tr>
<tr><td>경주 능지탑</td><td>곡면각</td></tr>
<tr><td>경주 황복사
동편
폐고분지</td><td rowspan="3">평복</td><td>평면각</td></tr>
<tr><td>경주 김유신묘</td><td>평면각</td></tr>
<tr><td>경주 원성왕릉</td><td>무복</td><td>곡면각</td></tr>
<tr><td>경주 헌덕왕릉</td><td>평복</td><td>평면각</td></tr>
<tr><td>경주 흥덕왕릉</td><td rowspan="3">무복</td><td>곡면각</td></tr>
<tr><td>경주
구형동방형분</td><td>곡면각</td></tr>
<tr><td>경주
진덕여왕릉</td><td>평면각</td></tr>
<tr><td colspan="2">석탑 십이지상</td><td>경주 원원사지</td><td>상층기단</td><td>석제</td><td>좌상</td><td>평복</td><td colspan="2">부조</td></tr>
</table>

HANSUNG UNIVERSITY

	동·서삼층석탑					
	안동 금소리 삼층석탑	하층기단	석제			부조
	안동 임하리 십이지삼층석탑	하층기단	석제			부조
	영양 화천리 삼층석탑	하층기단	석제			부조
	영양 현리 삼층석탑	하층기단	석제			부조
	구례 화엄사 서오층석탑	하층기단	석제			부조
기타	경주 암곡동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	비좌 네면	석제			부조
	울산 태화사지 십이지상 부도	표면	석제	입상		부조
	청동제 십이지상추	표면	청동	입상		부조

[표 4] 신라의 십이지상 관련 사례 분석표

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Utilization of the Twelve Zodiac Deities in Silla

Son, Su-Yeon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ithin a single continuous flow, the process by which the Twelve Zodiac images (十二支像) were accepted, emerged, and transformed in Silla, in order to clarify the changing meaning that these images held within Silla society.

The Twelve Zodiac (十二支) refers to the twelve characters Ja(子), Chuk(丑), In(寅), Myo(卯), Jin(辰), Sa(巳), O(午), Mi(未), Sin(申), Yu(酉), Sul(戌), and Hae(亥), which were given form as the twelve animals: th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sheep, monkey, rooster, dog, and pig. These images first appear in China, where the Twelve Zodiac, initially represented only as written characters, came to symbolize direction and time, and were later given form as animal-headed and human-bodied figures (獸頭人身形). While Silla adopted the Chinese Twelve Zodiac images, it developed its own distinctive trajectory in terms

of both placement and iconography. In particular, the practice of carving the Twelve Zodiac images onto the hoseok (護石), the stone enclosure surrounding the exterior of a royal tomb mound, is attested nowhere else in East Asia but Silla, and the depiction of the figures in martial, armor-clad form bearing weapons (武將形) is likewise unique to Silla.

The Twelve Zodiac images accepted in Silla appeared as grave goods (副葬, bujang-hyeong) interred inside the tomb chamber, or as separately buried objects (埋納, maenap-hyeong) placed outside it. Twelve Zodiac images of the interred type, including the bronze figures excavated from the Yonggang-dong tomb in Gyeongju, show a stepwise shift from placement as grave goods inside the tomb toward separate burial outside it, a process in which the iconography also changed from civilian attire to martial/armored form, reinforcing the images' protective character.

The Twelve Zodiac images subsequently began to appear on the exterior hoseok of royal tombs, a development made possible by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hoseok itself. The hoseok of Silla royal tombs evolved from natural fieldstones, through dressed long rectangular stones, to a combination of myeonseok (面石, upright slab stones) and taengseok (撐石, buttress pillar stones). This structural change is closely tied to the adoption of Buddhist stone pagoda architecture. The fact that the hoseok structure formed by myeonseok and taengseok resembles the structure of a pagoda's base, together with the fact that the carving of Twelve Zodiac images in relief on royal tomb hoseok began at a point coinciding with the development of Buddhist culture, indicates that Silla royal tombs were gradually transformed into spaces bearing the character of Buddhist pagodas. The hoseok Twelve Zodiac images found at ten royal tombs, including those of King Seongdeok, King Gyeongdeok, King Wonseong, and King Heungdeok, served the symbolic function of protecting the tomb and visually manifesting royal authority.

The Twelve Zodiac images also spread beyond the space of the royal tomb to Buddhist stone monuments. By the ninth century, stone pagodas combined the Four Heavenly Kings (四天王像), the Eight Legions (八部衆像), and the Twelve Zodiac images into a hierarchical assembly of guardian deities (神衆), showing that the meaning of the Twelve Zodiac images had expanded from a guardian specific to the royal tomb to a member of the assembly protecting the Buddhist Dharma (佛法). Amid the political turmoil of Silla in the late ninth century, the carving of Twelve Zodiac images on royal tomb hoseok declined, but the style was not severed and was carried forward into the royal tomb culture of Goryeo and Joseon.

The spread of the Twelve Zodiac image tradition shows that its meaning was universalized beyond the specific domain of the royal tomb across Silla society as a whole, and that this tradition continued to be transformed and carried forward into Goryeo and Joseon after Sill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placement and iconography of the Twelve Zodiac images, together with the historical circumstances that shaped them, within a single continuous flow.

【Keywords】 Silla(新羅), The Twelve Zodiac(十二支像), Royal Tomb(王陵), Hoseok(Stone Enclosure, 護石), Decorated Stone Pagoda(莊嚴塔)